

제30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축 사



2023. 9. 15.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김권회 회장님과 사비나 한 (Sabina Han) 회장님, 그리고 세계 각국의 한인 법률가 여러분!

세계한인법률가회 제30차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4년 만에 다시 국내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창설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법률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기반으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해외입양인을 위한 활동,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동포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 및 초년 변호사의 멘토링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와 공익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한인법률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와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당면한 국가 간 불평등, 자연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인구 변동 문제 등 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던 감염병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다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의 주제인 “Defying Gravity and Soaring Together - Toward a Sustainable Future” (“도전을 이겨내고 다함께 비상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경험했던 팬데믹은 우리가 국제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팬데믹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의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치·경제·사회·생태환경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계 각국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인법률가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시하는 임무가 우리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적 연대와 화합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범인류적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미래를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는 크나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올해는 현행 헌법과 함께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5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

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역사의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주목하겠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법률가 여러분의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위기의 경험을 통한 깊은 이해와 더 큰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와 학술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지혜를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유익하고도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모국 방문의 소중한 기회에 한국을 최대한 경험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세계한인
법률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